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오늘은 추수감사절 · 교회설립 5주년

주일 낮 감사예배와 성찬식...찬양예배땀 장로 임직식 비전2000운동 승전보고와 선교사 파송식도 함께 열려

추수감사절인 오늘은 서울교회 창립 5주년이기도 하다. 특히 오늘은 장로임직식과 선교사파송식,비전2000운동 승전보고와 시상식도 함께 열려 풍성한 시간을 갖는다.

이에따라 교회는 I, II, III부 예배를 감사예배로 드린다. 예배 중에 성찬식을 갖고 추수감사절 헌금도 같이 드리게 된다.

교회학교별로도 각기 감사와 축하의 시간을 갖는다.

또 창립5주년 기념사진전도 교회에서 개최된다. 교회당 복도에서 열리는 이 사진전은 지난 5년간 우리교회가 걸어온 길을 80여 점의 사진에 담고 있다. 교회가 창립되기 이전의 예배광경, 각종 교육·선교·구제의 모습들 그리고 전교인가족수련회와 한마음 축제 등 지난 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일목요연하게 전시되어 있다.

한편 제 4대 장로 장립식 및 취임식과 선교사 파송식, 96비전2000운동 승전보고 및 시상식은 찬양예배시 열린다.

오늘 장로장립식에선 이영기·성준경·

김상철·김영준 등 4명의 피택장로들이 임직을 받고 장로에 취임하게 된다. 이들 4명의 장로들은 지난 6월 첫 주 공동의회에서 선출되어 약 6개월간의 교육을 거쳤다. 이에 따라 우리교회 시무장로는 모두 18분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박종상 선교사의 파송식도 오늘 갖는다. 박선교사는 선교의 오지로 알려진 지역으로 파송되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지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다.

이어 비전2000운동 승전보고순서도 마련되어 있다. 이 시간엔 지난 50일동안 진행되어온 비전 2000운동의 결과를 점검하고 각 분야에서 수고하신 분들의 노고에 대한 시상식도 있다. 특히 비전2000운동기간 중 오전 10시와 오후 10시에 다니엘기도에 참여한 성도에게는 다음 주 별도의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전2000운동 본부에서는 기록한 다니엘 기도카드를 11월 27일(수)까지 헌금함이나 주간성경공부 제출함에 넣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교회설립 초기의 모습들

박종상 선교사



어갈 지도자와 선교사들을 위해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교회의 선교지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박 선교사는 1960년 생으로 그리스도신학대와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올해 목사 안수를 받았다. 가족으로는 유소양 선생과의 사이에 2녀(은혜·은경)를 두고 있다.

박종상 선교사가 파송되는 곳은 99% 이상이 무슬렘으로 선교사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중앙아시아의 한 회교국이다. 따라서 파송되는 나라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지면으로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

박 선교사는 오늘 파송을 받고 11월 중으로 출국하게 되는데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 종족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진 그 나라에 전쟁이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평화와 자유가 실현되는 ‘일치와 화해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 나라 교회를 이끌

주간성경공부 내달 8일 마감 성적우수 성도에게 연말에 시상

‘1년 1독을 위한 주간성경공부’가 50주째인 12월 8일(주일) 올해의 공부를 마친다.

교육위원회는 그동안 참여도와 채점성적을 계산하여 실적이 우수한 성도에게 12월 29일(주일) 찬양예배 시 상상을 할 계획이다.

주간성경공부는 올초부터 주보와 함께 배포된 문제지를 통해 성도들의 성경공부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 545명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성적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담당교구 목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감사절
메시지



“감사하며 살리라”

이종운 목사

온실 속의 작물처럼 외부로부터 자극이나 시련없이 평온무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받은 특혜인가. 오히려 극심한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치명적인 고통의 와중에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 아닐까.

오늘의 서울교회가 탄생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진통을 너무도 혹심하게 겪어야 했다. 또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크신 섭리 가운데서 서울교회가 필요하시어 그토록 많은 이들의 가슴에 명이 들도록 기막힌 산고를 통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서울교회의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신령한 감격도 수없이 체험하였다.

혈혈단신 고향과 친척과 아버 집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빈 손 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여기저기 흩어져 고아처럼 울었다. 머리칼을 자른 목사를 보면서 성도들은 차가운 마루바닥에 엎드려 얼마나 통곡했던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몰려드는 성도들은 마치 무슨 성전(聖殿)을 위해 전쟁터에라도 나가는 용사들처럼 의기에 찬 눈초리로 서로를 바라보며 격려하였다.

집에 있는 방석, 피아노, 소파 등 재산목록에 있는 제일 좋은 것을 닦치는대로 교회로 들고 왔다. 부동산 문서까지 마치니 교회는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았다. 전세금을 줄 돈이 없어도 걱정하는 이도 없고 못받을까봐 염려하는 이도 없었다.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신 비전만 쳐다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다보니 교회는 천국 그 대로였다.

50일간의 출애굽대행진의 기도회를 마치고 마침내 우리는 흥해를 건넌 용사처럼 그 해 11월 24일 교회간판을 걸고 서울교회를 설립하였다. 선교와 구제와 교육의 세 기둥을 세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표어로 삼고 새 출발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

혹자는 하나님을 알되 경외하지 않고 어떤 이는 경외는 하되 사랑하지 않는 이가 있으나 서울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과 그 은총을 체험한 터라 환경이야 어떻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 * *

어찌 즐겁고 기쁜 일만 있었겠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어둡고 찌르는 가시 때문에 방황하면서 괴로와하던 때가 어찌 한 두번 이리요. 누구를 위해 이같은 고통을 맛보아야 했는지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은 배일에 감춰진 신비처럼 그 원인을 회피하게는 알 수 있으나 아직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려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을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밤도 낮도 없이 때로는 시궁창에 버려진 찌꺼기처럼 원인도 모르는 공격과 비난과 천대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왔다. 한국교회 갱신의 기치를 들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좇아 서울교회는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이다.

수준 높은 믿음 위에 헌신을 하고 있는 성도들과 깊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 주신 앞선 이들의 희생과 사랑을 몸으로 맘으로 뜨겁게 느끼면서 특혜를 입은 성도답게 이제는 사명을 위해 일하는 교회로 어느덧 의젓하게 성장했으니 누가 뭐래도 서울교회는 이미 한국교회의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어찌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 국내복음화를 위해 놓어준 100교회운동과 전국 목회자 갱신을 위한 신학세미나는 한국교회의 방향을 바꾸는 적지 않은 힘이 되었다. 김치(KIMCHI) 프로그램이 국제적인 복음단체인 세계로잔위원회의 공인기구로 인준을 받은 것도 정치적 힘으로가 아니라 그 열매가 우리의 한 일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저 옛날 빌라델비아교회처럼 “적은 힘을 가졌으나 많은 일을 하였도다”라는 칭찬만 받는 교회로 서울교회는 그 위상이 드러난 것이 아닐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과 그 뜻을 좇아 전진하는 일 뿐이

다. 수많은 교인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오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예배당 지을 비전을 주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같은 것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면서 우리의 내적인 성숙을 더욱 다져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더하자. 좋았던 일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무엇이든 감사하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도 아니며 싫어했다고 해서 내게 해로운 것도 아니다. 싫든 좋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나를 유익하게 해줄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그보다도 내가 받은 것은 모두가 내게 과분한 대접이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후대하셨다. 그보다도 내 자신의 행적에 비하여 과분하게 내게 주셨다.

범사에 감사하면 나의 모든 것이 축복사건으로 변화될 것이며 나의 모든 날이 찬송의 날이 될 것이고 내가 선 곳이 천국이 될 터이니 전천후 감사 속에 사는 우리 서울교회 가정들이 되시기를 기원한다.

✦ 순례자 컬럼 ✦

“주신 은총을 감사하자”

거우 한 달란트 뿐이라고 받은 것 보며 불평도 원망도 해 보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시비는 커녕 감격의 눈물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두 달란트 받은 이는 두 배를, 다섯 달란트 받은 이는 다섯 배를 나보다 더 수고해야 할 터이니 하나님은 나의 수고를 5분의 1로 경감시킨 것이 아닌가. 나로 하여금 지금의 수고의 5배를 더하도록 배당하셨다면 나는 벌써 쓰러졌을 위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주께서 아시는 나는 훨씬 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내게 한 달란트를 배당하신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차별대우라고 불평하지 않았던가. 내게 주신 오늘의 은총이 과분한 줄 알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리라.

교회설립 5주년을 맞이하며

“복음의 역군되자”

이응선 (장로, 사무국장)



벌써 5년이 흘렀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울교회를 세워주셨다.

우리는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

목사님들은 서울교회가 한국의 많은 교회를 향도해 나갈 진리의 터가 되길 갈망하면서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다하셨다.

장로님들은 밤잠도 설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뛰고 또 뛰었다.

권사님들은 자신의 나이도 잊은 채 젊은이 못지 않은 힘을 내어 눈물나는 헌신을 하셨다. 얼굴에는 주름살이 하나 둘씩 늘어갔지만 주님 사랑하는 열정의 불길은 나날이 더 높게 타오르기만 했다. 이제는 어서 속히 새 예배당을 헌당하여 거기서 마음껏 기도하고 목청 높여 찬송부르는 것만이 소원이시다.

집사님들은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숨은 봉사로 죽도록 헌신하였다.

젊은이들은 온갖 꾀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지켜왔다.

어린이들은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무력무력 자라고 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다. 교회는 기쁜 마음으로 가득 찼고 감사의 찬송이 우렁차게 메아리치며 구원받은 백성이 날마다 증가하고 교회는 활기가 넘쳤다.

우리가 받은 특별한 은혜를 우리만 향유할 수 없어 아직 교회당도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왔다. 민족복음화와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 시작한 농어촌 100 교회 운동과 연인원 7천 명에 달하는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온 성도들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세계를 향한 김치신학세미나가 올해까지 7차에 이르도록 개최할 수 있었던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더 큰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가 기도할 대지를 강남구 대치동 요지에 준비하였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당이 건축되어 그곳이 세계선교와 민족복음화의 센터가 될 것을 믿고 기도드린다.

서울교회 한사람 한사람은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하다.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서로 열심히 사랑하며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정진하자. 세상을 본받지 말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날리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고 빛의 자녀답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하자.

서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랑으로 하나되어 복음의 일꾼이 되자.

비전2000 운동을 마치며

“전도는 이제부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하며 진행해 온 '95 비전 2000운동이 오늘

찬양예배 시 승전감사예배를 드림으로 막을 내린다. '96 비전 2000 운동 기간동안 우리는 일곱가지 기도제목과 전도대상자를 놓고 다니엘 기도, 연속기도회, 전교인합심기도,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등 각양의 모습으로 기도예에 힘써 왔다. 또한 노방전도, 축호전도 등으로 전도 활동을 펴 왔다. 비전 2000 운동의 일환으로 어린이를 위한 초청전도집

회 “작은 순례자의 합창”을 개최하였다. 또한 태신자와 새가족을 위한 서신 발송 등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오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해왔다.

오늘 찬양예배 시에는 이번 '96 비전 2000운동은 오늘로써 50일간의 행진을 마치게 된다. 이제부터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생활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전하



지난 16일(토) 열렸던 어린이초청 전도집회 “어린이 순례자의 합창”

는 일은 우리의 말보다는 구원의 기쁨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 더 큰 호소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본부장: 김태기 장로

〈순례자〉 창간 5주년을 축하하며

“5년 후의 서울교회를 바라보길...”

송인숙

서울을 떠나 낯선 지방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지 2년. 어색하기만 했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점점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출석교인 200여 명의 아담한 교회에 앉아 예배를 드릴 때면 가끔씩 서울교회에서 드리던 예배 장면이 떠오릅니다.

짧은 기간이었기에 알고 지낸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열심히 봉사하시던

모습과 따뜻한 눈빛들도 가끔씩 생각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도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순례자〉를 받아보는 것은 제게 큰 기쁨입니다. 교회의 근황을 알고, 목사님의 말씀을 접하고, 형제자매들의 안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립 5주년을 맞은 서울교회, 그리고 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던 〈순례자〉가 벌써 5년이란 시간을 달려왔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꽃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5년 전의 눈물과 아픔을 되새기기보다는 5년 후의 서울교회를 계획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숙한 감사의 날이 되시기를 멀리서나마 기도드립니다.

송인숙 성도는 서울교회 창립회원이며, 1992 ~ 93년에 〈순례자〉 편집위원으로 봉사하였다. 2년 전부터 남편을 따라 경북 경주시에 살고 있다.

신임장으로
임직소감

“죽도록 충성하오리다”



이영기

1. 교회설립 5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에 장로로 취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뜻을 잘 헤아려 2000년대를 향한 복음의 진보와 서울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자 합니다.

2. 개인사업을 허락해 주셔서 창립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직원과 함께 매일 아침 예배로 시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주님의 뜻을 의지하여 삶의 현장에서 실행일치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우리교회는 설립 이래 한국교회갱신과 세계선교를 향한 크고 놀라운 비전을 갖고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좀더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참여했으면 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며 이해하며 겸손히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부서와 교구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확장과 복음전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 * *



성준경

1.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무도 부족한 제가 장로로 피택되어 두려운 마음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순종할 따름입니다.
2. 매일 매일 가정에서의 경건생활에 좀더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늘 노력합니다.
3. 우리는 늘 ‘사도적 교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될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이를 먼저 실천하여 부끄러움 없이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힘쓰겠습니다.
4. 물론 지금보다 더 많이 봉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제까지 교회에서 부족하나마 진심으로 봉사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기쁨으로 봉사하며 더욱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 목회자 · 교우동정 ■

- * 이종운 목사는 19(금) ~ 30일(토) 동신교회 설립 40주년 기념집회를 인도한다.
- * 중등부에서는 17일(주일) 찬양대원과 교사 20여 명이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성민장애인교회’를 방문, 찬양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1. 서울교회 제 4대 장로로 임직하시게 된 소감은?
 2.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3. 서울교회가 지향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봉사하시겠습니까?
- (대답: 김명현 목사)

1.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고자 합니다.
2. 매일의 시작과 끝을 기도하고 있으며, 가정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월 2, 3회 ‘비전126중보기도모임’ 활동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상철

3.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며 세계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둘째, 이종운목사님의 지도력으로 추진되어온 목회자신학세미나와 김치신학세미나를 잘 후원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셋째,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되며, 신앙인으로서의 본을 보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4.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서울교회의 분위기가 ‘온유와 겸손’의 특징을 갖는 데 노력의 목표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 * *

1.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주시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꿇고 간구합니다. 서울교회에 맡겨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한걸음 앞서 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김영준

2. 틈나는대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는 새벽과 일과를 마친 밤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는 식구가 모일 때마다 짧은 시간이라도 예배를 드리기에 힘씁니다. 성경은 1년에 1독을 하고 5년에 한 번은 성경을 손으로 써보려합니다.
3. 첫째로 새신자관리문제를 들고 싶습니다. 새신자들이 교회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부서간 원활한 협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기능별 선교 모임(병원선교, 장애인선교 등)의 활성화가 요망됩니다.
4.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듯이 섬기는 종이 되고자 합니다. 은혜와 화목을 중시하고, 청지기처럼 봉사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서나 꼭 필요한 종이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기독교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상』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96추수감사절과 교회설립 5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2. 새로 임직을 받는 장로들을 위하여
3. 박종상 선교사의 가족과 그의 사역을 위해
4.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